



##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, 더욱 빠르고 간편하며 직관적인 오디오 편집 지원

- 주요 오디오 워크플로우 업데이트로 고품질 오디오로 영상 제작 및 몇 번의 클릭으로 작업물 완성 가능
- 쉽고 빠른 맞춤형 오디오 전환 생성 위한 '인터랙티브 페이드 핸들', 대화, 음악, 음향 효과 및 주변 소음을 자동 식별하는 AI 구동 오디오 카테고리 태깅이 추가된 새로운 '기본 사운드 배지' 등 신규 오디오 기능 발표
- 프리미어 프로, 2024 선댄스 영화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재인증...올해 출품작 중 80% 이상에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툴 사용

2024년 1월 17일, 서울 - 어도비가 [프리미어 프로\(Premiere Pro\)](#)에 더욱 빠르고 쉬운 편집을 지원하는 직관적인 신규 오디오 경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. 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혁신으로 편집 전문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, 초보자는 필요한 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.

베타로 이용 가능한 프리미어 프로의 혁신 기능에는 타임라인 영상 클립에 '인터랙티브 페이드 핸들(interactive fade handles)'이 포함돼 편집자는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다양한 맞춤형 오디오 페이드 효과를 제작할 수 있다. 새로운 AI 구동 기능인 '오디오 카테고리 태깅(audio category tagging)'은 대화, 음악, 음향 효과, 주변 소음 등을 자동 식별하고 해당 아이콘으로 클립에 레이블을 지정해, 편집자가 각 오디오 유형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한 번의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. 새롭게 디자인된 '클립 배지(clip badges)'를 통해 클립에 적용된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신규 효과를 빠르게 추가하거나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. 이 밖에도 트랙 높이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더욱 현대적이고 지능적인 파형 디자인, 타임라인에서 오디오를 보다 쉽게 보며 작업할 수 있는 클립 색상 개선 등도 이뤄졌다.

프리미어 프로는 현재 베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오디오 기능 뿐 아니라, 원치 않는 노이즈를 즉시 제거하고 음질이 좋지 않은 대화 녹음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AI 구동 [음성 향상\(Enhance Speech\)](#) 툴을 오는 2월 중 정식 선보일 예정이다.

어도비는 이번 프리미어 프로의 오디오 워크플로우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 기능과 혁신으로, 편집자가 고품질 오디오로 영상을 제작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종 작업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애슐리 스틸(Ashley Still)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(Adobe Creative Cloud) 수석 부사장 겸 총괄은 “사운드는 영화와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임팩트를 더하며, 스토리를 전달하거나 시각적 요소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힘을 갖고 있다”며 “오디오를 보다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영화 제작자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, 오디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완벽한 툴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#### 영상 편집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오디오 워크플로우

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오디오 워크플로우는 편집자가 사운드 품질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해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크게 절약해 준다. 프리미어 프로에 새롭게 추가된 최신 기능은 다음과 같다:

- 클립 핸들을 드래그해 오디오 페이드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**인터랙티브 페이드 핸들**로 편집자는 더욱 빠르게 맞춤형 오디오 전환을 생성할 수 있다.
- 오디오 카테고리 태그가 포함된 기본 **사운드 배지**는 AI가 오디오 클립에 대화, 음악, 음향 효과, 주변 소음 등에 대한 태그를 자동 지정하고 아이콘을 추가함으로써 편집자가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시각화 된 **효과 배지**를 통해 효과가 적용된 클립을 쉽게 확인하고, 신규 효과를 빠르게 추가하며, 시퀀스에서 효과 매개변수를 자동 실행할 수 있다.
- 타임라인의 새로운 **파형 디자인**으로 클립의 트랙 높이 변화에 따라 파형 크기가 지능적으로 조정되며, 시퀀스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색상도 적용 가능하다.

#### 신진 영화 제작자부터 베테랑까지, 영상 전문가가 선택하는 어도비

한편,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툴은 선댄스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툴로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. 선댄스 인스티튜트(Sundance Institute)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[디디\(Didi, 弟弟\)](#), [윌 & 하퍼\(Will & Harper\)](#), [프리다\(FRIDA\)](#), [델마\(Thelma\)](#), [리틀 데스\(Little Death\)](#) 등 선댄스 영화제 작품의 절반 이상(57%)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다. 또한 올해 작품의 3분의 2 이상(68%)은 프리미어 프로 또는 프레임닷아이오(Frame.io)로 제작됐으며, 83%

애프터 이펙트(After Effects), 포토샵(Photoshop), 서브스턴스 3D 컬렉션(Substance 3D Collection) 등 하나 이상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.

*델마*의 작가, 감독 겸 편집자인 조쉬 마골린(Josh Margolin)은 “프리미어 프로는 직관적이고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, 영화 편집 시 자주 사용한다”며 “컷, 컬러 패스, 시각효과(VFX)를 검토할 때는 프레임닷아이오를 주로 활용했고, 특히 피드백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.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일부 핵심 팀원들이 다른 국가에 체류 중이었지만 프레임닷아이오를 통한 매끄러운 대화 프로세스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메모를 남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”고 전했다.

*디디*의 편집자인 아리엘 자코브스키(Arielle Zakowski)는 “프리미어 프로 프로덕션(Premiere Pro Productions)으로 보조 편집자와 함께 편집하며 시퀀스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”며 “2008 년 당시 컴퓨터 세상을 다룬 영화 속 장면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(Illustrator)로 에셋을 제작하고, 애프터 이펙트로 가짜 컴퓨터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었다.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간 자료 전달이 매우 쉬웠고,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”고 설명했다.

영화 *페넬로페*의 포스트 프로덕션 총괄을 맡은 듀플라스 브라더스 프로덕션(Duplass Brothers Productions) 소속 알렉스 레갈라도(Alex Regalado)는 “페넬로페는 워싱턴에 위치한 아름다운 외딴 숲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포스트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창의성이 필요했다”며 “프리미어 프로, 카메라 투 클라우드(Camera to Cloud) 및 프레임닷아이오를 통해 LA 에 있는 보조 편집자와 뉴욕의 VFX 감독, 시애틀 현지 프로덕션 팀 모두가 연결될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
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툴 중 하나로 꼽힌다. TV 및 영화 제작 업계를 이끄는 리더들은 편집, 타이틀 디자인과 시각 효과를 위해 어도비 툴을 사용하고 있다. 지난 한 해 동안 25 개 이상에 달하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수상작이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의 핵심으로 어도비의 영상 툴을 활용했다.

프리미어 프로, 애프터 이펙트, 프레임닷아이오 등 다양한 어도비 툴을 사용해 스토리를 구현한 FX 의 [더 베어\(The Bear\)](#)는 지난 주 '싱글 카메라 코미디 시리즈 부문 우수 편집상'을 비롯해 크리에이티브 아트 에미상(Creative Arts Emmy Awards) 4 관왕을 차지했으며, 모션 그래픽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 애플의 *재난, 그 이후(Five Days at Memorial)*는 '단일

에피소드 부문 우수 특수 시각 효과상'을 수상했다. 어도비 서브스텝스 3D 는 *안도르(Andor)*, *하우스 오브 드래곤(House of the Dragon)*, *더 라스트 오브 어스(The Last of Us)*, *반지의 제왕: 힘의 반지(Lord of the Rings: The Rings of Power)*, *만달로리안(The Mandalorian)* 등 에미상 '우수 시각 효과' 부문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에 사용되며 시각 효과 부문을 휩쓸었다. 이 밖에도 어도비 툴로 제작된 또 다른 에미상 후보작으로는 [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\(Saturday Night Live, SNL\)](#), [웬즈데이\(Wednesday\)](#), [화이트 로투스\(White Lotus\)](#) 등이 있다.

*더 베어*의 편집자이자 에미상 수상자인 조안나 나우글(Joanna Naugle)은 "모든 편집 작업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한다"며 "프리미어 프로는 사용하기 쉽고, 특히 프리셋 덕분에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. *더 베어* 편집 과정에서 프리미어 프로 프로덕션을 사용해, 팀이 시카고에서 촬영하는 동안 모두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었다"고 말했다.

*SNL*의 편집자이자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라이언 스피어스(Ryan Spears)는 "매주 사전 테이프를 편집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프리미어 프로 없이는 *SNL*을 편집할 수 없었다"며 "텍스트 기반 편집(Text-Based Editing),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(Speech to Text) 등 AI 구동 기능으로 대사 별 최상의 장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, 편집을 다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"고 전했다.

## 어도비에 대해

어도비는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. 자세한 정보는 [어도비 홈페이지](#)에서 찾을 수 있다.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[공식 페이스북](#)과 [뉴스룸](#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###